

FOCUS

건설업 신규진입 증가

지난 3월 16일 대한건설협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일반건설업체수가 토목건축 2천 607개사를 비롯 토목 3천725개, 건축 2천561, 산업설비 8개, 조경 112개등 모두 9천 13개(등록수 1만525개사)로 지난 1월 8천여개를 기록한데 이어 불과 두달 열흘만에 9천개를 넘어섰다. 이와같은 증가추세가 갈수록 가속화돼 올들어 월평균 414개사씩 증가하는 폭증세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건설업체의 신규진입 증가는 지난해 10억원미만의 공사입찰(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제가 면제된데다 작년 7월부터 공제조합의 출자까지 임의화 되면서 무더기로 건설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올들어 건설업 등록기준강화 및 적격심사시 실적평가 제외대상 공사범위의 축소등 정부의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건설시장에 진입하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 건설업체수는 서울 1천435개사로 전체의 16%를 차지한데 이어 경기 1천415개사, 전남 816개사, 경북 813개사, 경남 674개사,

강원 622개사, 충남 548개사, 전북 536개사, 충북 523개사, 부산 439개사, 인천 285개사, 대구 241개사, 제주 222개사, 대전 193개사, 광주 132개사, 울산 127개사 등이다.

건설업 경기전망 어두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4월 7일 업종별 매출액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4월 업종별 기업체감경기조사에 따르면 건설업의 이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4.8로 전체 산업평균 107.7에 크게 못미쳐 이달에도 건설경기의 부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실적치인 72.7로 전망치인 94.1과는 큰 차이를 보여 최근의 주택경기 등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제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이달중 건설업에 대한 투자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투자전망 BSI가 93.9로 여전히 투자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수익성을 반영하는 채산성 BSI는 100으로 나타나 이달 건설업의 채산성이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소비심리의 회복, 회사채발행등 자금시장 여건의 개선, 저금리기조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완화 등으로 인해 건설업의 공사수주와 수출, 자금사정 BSI는 지난달 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기타 철강업의 BSI는 84.4로 나타나 수입원자재 가격상승과 환차손 증가 등으로 인해 이달 철강경기는 지난달 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시멘트업의 BSI는 133.3으로 조사돼 계절적 비수기 탈피로 인한 수요증가로 지난달 보다 다소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IMF한국경제 내년 5.5%성장 예상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올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위축이 단기간에 그쳐 내년에는 빠르게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금년 3.5%로 떨어질 뒤 내년 5.5%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에 대해 자금조달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투자 신인도는 취약한 상황이라 지적하며 이를 위해 기업·금융·제도개혁 등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주요국 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국가별	2000년	2001년	2002년
한 국	8.8	3.5(6.5)	5.5
미 국	5.0	1.5(3.2)	2.5
일 본	1.7	0.6(1.8)	1.5
유 럽	3.4	2.4(3.4)	2.8
중 국	8.0	7.0(7.3)	7.1
세 계	4.8	3.2(4.2)	3.9

※ ()는 지난해 9월 전망치

IMF는 지난 4월 26일 공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FRP가 신속한 정책대응을 하고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정책운용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비교적 경기위축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으며, 내년에는 원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으로는 세계경제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생산증가를 매년 하락

지난 4월 12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98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에 따르면 건설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산출액 구성비는 90년 10.4%에서 95년 9.8%에 떨어지는데 이어 98년에는 9.2%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건설업의 산출액 구성비가 하락한 것은 산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난 90~95년에 13.5%에 달하던 것이 95~98년에 5.7%로 크게 떨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업 고용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피용자 보수율(피용자보수/국내총생산×100)은 90년 25.7%로 하락하다가 98년에 27.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95년에 피용자 보수율이 떨어진 것은 인력을 기계가 대체한데 따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98년에 다시 상승세를 보인 것은 임금이 높아진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행중인 공사에 대한 목수등의 투입이 늘어난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의 취업자 구성은 90년 7.5%에서 95년 8% 98년 9.1%로 각각 늘었는데 이는 건설부문의 취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제조업 등에서 감소해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억원의 산출액을 기준으로 고용유발계수는 95년의 경우 32명으로 산업전체의 평균(35명)에 비해 3명이 적었고 98년에는 24명으로 전체평균(24명)보다 1명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산출액 단위당(10억원) 필요한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건설업이 90년 27명으로 전체평균(38명)을 크게 밀돌았으나 95년에는 17명으로 차이가 2명으로 준데 이어 98년에는 15명으로 평균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골재채취량 해마다 줄어

4월 건설교통부와 골재협회에 따르면 지난 97년 IMF이후 국내 골재채취량이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요인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1억3천390만^m에 달했던 골재채취량이 98년 1억840만^m로 19.1%로 크게 감소했으며, 99년에는 1억1천230만^m로 97년의 11.1%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1억1천230만^m로 97년대비 16.1% 수준에 머물러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채취허가 실적도 97년 2억69만^m에서 98년 8.2%줄어든 1억8천990만^m에 그쳤으며, 99년 13.4% 감소한 1억7천930만^m, 지난해에는 97년대비 32.5%나 감소한 1억3천970만^m에 머물러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

허가량 대비 채취량은 97년 64.7%, 98년 57.1%, 99년 69.95%, 2000년 80.4%로 나타났다.

골재 채취량이 이처럼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파트등 민간건축을 중심으로 국내건설경기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골재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골재업계는 건설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올 채취량도 지난해 보다 줄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건설경기가 성수기를 맞아 되살아나고 있고, 레미콘출하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지역적으로 골재의 수급에 약간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레미콘 연속타설 진기록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인천 LNG지하저장시설 #215·216건설현장에서 레미콘 3천333대분에 해당하는 매스콘크리트 2만^m가 지난 4월 27일부터 3일간 연속 타설됐다.

국내에서는 연속타설을 하는 최대규모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공사장까지 운반하여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고 현장관계자는 밝혔다. LNG저장탱크가 특수구조물임에 콘크리트 균열방지를 위해 기존에 쓰이던 프리쿨링이나 파이프쿨링, 액화질소의 사용방법 등을 적용하는 대신 수화열에 의한 균열방지를 위해 저발열 시멘트가 적용되기도 했다.

LNG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미세한 균열이라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균열방지를 위한 콘크리트의 원료선정부터 타설방법까지 색다른 방법을 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균열방지에 경제적이고 효과가 큰 저열포틀랜드시멘트는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신공항, 철도등 대형국책사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